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 정책자료집]

# 그대와 함께 흘러가다, 여울

정 후보

문영찬  
[15학번 법학과]



부 후보

황정연  
[17학번 건축도시부동산학부]



# 목차



## ‘여울’의 이야기

- #정 후보의 이야기
- #부 후보의 이야기
- #선거운동본부장의 이야기

## 공약

- #소통
- #정책
- #복지
- #교육권
- #문화

## ‘여울’의 이야기

### ‘그대와 함께 흘러가겠습니다’

학우들의 삶에 먼저 다가가 ‘소통’ 하겠습니다. 매년 해결되지 않는 소통 문제, 이제는 새로운 소통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우들의 의견 수렴에도 불구하고 등한시되었습니다. 매년 학우들은 총학생회와의 소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체계적인 소통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울 선거운동본부는 새로운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매년 쇠퇴해가는 학생회의 신뢰,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여울’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매사에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학생이 존재하기에 학생회가 존재합니다. 학생회라면 학우 누구나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제기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울’ 선거운동본부는 학생들의 신뢰를 토대로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학생들과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큰 소리를 내며 힘차게 흘러가는 ‘여울’ 처럼 소소한 일상에서도 큰 소리를 낼 수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학우들과 소통하며 한 마디 한 마디가 알림이 아닌 서로의 울림이 되어 수원대학교의 내일을 그리겠습니다.

###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정 후보’의 이야기



문영찬  
[15학번 법학과]

- 2015년 인천 동산고등학교 졸업
- 2018년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입학
- 대한민국 인천공항기동대 만기 전역
- 법정대학 법학과 학생회 집행부 역임
- 2019년 인문사회대학 법행정학부 학생회 학부장 역임
-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 입후보



# ‘정 후보’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의 정 후보, 문영찬입니다.

**우리는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가 어떤 방식으로 선출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선거시행세칙은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지만 학부 및 학과에 대한 선거세칙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세칙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진행하면 학생들은 의문이 들고 그로 인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세칙을 통해 모든 학생회가 정당하게 선출되어 학생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년 소통에 관한 공약과 노력이 있었지만 이는 늘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체제를 정립하여 소통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하겠습니다.

2018년 감사위원회가 설립되고, 2019년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기존보다 청렴하고 투명하게 학생회비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생회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접근성의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보다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강의평가를 공개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강의 선택의 도움을 주고, 강의매매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일반학생들의 수업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 교육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생복지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숙사와 셔틀버스 등 학우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내 시설물이 낙후되어 학생들은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와 치안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 개선하여 학생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모두가 소통한다면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 학생들의 앞에 서서 모든 학우가 바라는 방향으로 함께 흘러가겠습니다.

## ‘부 후보’의 이야기



황정연

[17학번 건축도시부동산학부]

2017년

화성 향남고등학교 졸업

수원대학교 건축도시부동산학부 입학

2018년

공과대학 건축도시부동산학부 학생회 집행부 역임

공과대학 학생회 여성차장 역임

2019년

공과대학 학생회 부 학생회장 역임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  
부 후보 입후보



# ‘부 후보’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의 부 후보, 황정연입니다.

지난 1년간 연[連] 공과대학 부 학생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 사업들과 행사를 진행하면서 꾸준히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생회에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학우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학우들의 일상에 공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원대학교에는 13,000여 명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듣고, 먼저 다가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더 편하게 통학하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권리는 찾아 나가겠습니다. 학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밀접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우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을 넘어, 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학생회 대표 몇 명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힘을 모을 때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올해 저는 무너져가는 학생사회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금왕 휴게소 쓰레기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대자보와 포스트잇 시위를 보며 아직 수원대학교 학생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회에 대한 믿음은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수원대학교가, 수원대학교 학생이 공론화되어 학우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쓰레기 사건’이라는 꼬리표에 학우들은 떼뭉치지 못한 걸음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줄 거라고 믿었던 총학생회는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총학생회의 성급한 입장표명문과 사과문으로 학우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은 물론, 학우들의 지속적인 피드백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답변, 이러한 아쉬운 대처로 총학생회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시 떼뭉친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쓰레기 사건’으로 학우들에게 안겨줬던 상처와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가 학우들을 직접 만나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해 밀접하게 다가가 해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학생회, 든든한 학생회, 체감할 수 있는 학생회, 그리고 변화하는 학교,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선거운동본부장’의 이야기



**박병헌** [15학번 외식경영학과]

**2015년**

시흥 매화고등학교 졸업  
수원대학교 경상대학 호텔관광학부 입학  
경상대학 호텔관광학부 학생회  
집행부 역임

**2018년**

대한민국 육군 만기 전역

**2019년**

경상대학 호텔관광학부 학생회  
부학부장 역임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 선거운동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장 박병헌입니다.

총학생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한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우들이 왜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걸까요? 저는 소통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 대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소통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증대하겠다는 소리만 냈을 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후보자들은 이전의 총학생회가 보여 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제가 바라는 학생회의 이상향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들과 함께하면 총학생회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원대학교 학우들의 마음을 이끌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총학생회가 변화하고 학교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소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소통방식을 통해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우들이 총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신뢰받는 총학생회, 소통하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36대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한 선거운동 본부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학우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 3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여울’ 선거운동본부장 박병헌



# '선거운동본부원 소개'

선거운동본부장-외식경영학과 15학번 박병헌

학부/학과	학번	이름
법학과	2	편도빈
법학과	3	송영진
행정학과	3	박성우
법행정학부	3	허지은
법행정학부	2	박상희
법행정학부	2	장원화
법행정학부	2	백주해
법행정학부	1	지민규
법행정학부	1	정운호
법행정학부	1	임성환
법행정학부	1	전장수
법행정학부	1	유환이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	정용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서다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오선빈
경영학부	2	유수정
경영학부	2	김지은
외식경영학과	2	채수민
관광경영학과	2	윤진
호텔관광학부	1	김보경
호텔관광학부	1	배나리
호텔관광학부	1	김기영
호텔관광학부	1	이상학
호텔관광학부	1	김예진
호텔관광학부	1	김정연
호텔관광학부	1	이다혜
호텔관광학부	1	최재희
호텔관광학부	1	이소민
호텔관광학부	1	류진
호텔관광학부	1	이형찬
호텔관광학부	1	피승빈
호텔관광학부	1	배재혁

학부/학과	학번	이름
호텔관광학부	1	김정아
호텔관광학부	1	오유리
호텔관광학부	1	정재욱
호텔관광학부	1	이도이
건축도시부동산학부	3	한하현
건축도시부동산학부	2	황소현
건축도시부동산학부	2	서재구
산업 및 기계공학부	3	김성환
산업 및 기계공학부	3	최예린
산업 및 기계공학부	1	신유진
산업 및 기계공학부	1	오기쁨
산업 및 기계공학부	1	박세곤
나노재료학과	3	송정은
신소재공학과	3	양준희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3	박서혜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2	김도희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2	천영은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1	김백준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1	이현우
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	1	권순규
체육학과	2	오광석
스포츠과학부	2	서강준
스포츠과학부	2	김호준
스포츠과학부	1	김도영
스포츠과학부	1	장원준
스포츠과학부	1	하정민
스포츠과학부	1	나유준
스포츠과학부	1	이건희
의류학과	2	백유정
의류학과	2	조준희
의류학과	2	한종현
의류학과	1	강두현

# 「소통」

“학생-학생회-학교” 체계적인 소통을 위한,

## 학생소통위원회

17년도 학교의 통보성 학부제 개편, 17-19년도까지 계속해서 변동되는 대학 교육과정, 19년도에 과 폐지 논란 이외에도 학교의 일방적인 통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있습니다. 또, 학우들의 건의사항 수렴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로 등한시 되었습니다. 학우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검토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측 입장을 통보가 아닌 소통의 첫 단계인 대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체계적인 소통을 위한 소통기구인 “학생소통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1학기에 학생소통위원회 발족을 진행하겠습니다. 학생소통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 3인 이상, 학생회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3인 이상, 총 6인 이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총학생회의 소통창구에서 취합한 건의내용을 안건으로 소통위원회와 학교측과 정기적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후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회의록을 게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1학기에  
소통위원회 발족

소통위원회를 통한  
정기적인 학우들의  
의견 수렴

소통위원회와 학교측의  
회의 진행 [건의사항 전달  
및 구체적인 근거 검토]

학우들과 직접 만나며 소통하자!

## 소통부스 개설

2018년도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시행된 전체참여회의는 지속적인 개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들의 무관심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낮은 참여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목적의 전체참여회의는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있을 뿐더러 회의 자체의 무거운 분위기로 학우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자유롭게 듣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우들의 **새로운 소통 창구인 "소통부스"**를 개설하여 학우들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회관 앞에서 한달에 1번씩 소통부스를 설치하여 학우 여러분들이 기존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하고자 합니다. 소통부스에서는 공약이행 점검과 추가적인 사업 홍보를 하고, 여론조사 및 건의사항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답변하겠습니다. 또, 학우들이 학생회에 더 쉽게 다가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오프라인 소통창구 확대

기존에는 일반 학우의 입장에서 학생회에 의견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는 전체 참여회의, 카카오톡 채널(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총학생회 웹사이트 건의 게시판 외에는 없습니다. 이 또한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며, SNS를 하지 않는 학우들에게는 더욱더 열악한 소통 환경입니다. 또 오프라인 소통창구인 전체참여회의는 방향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외에도 건의함은 현재 각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지만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우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오프라인 소통창구를 유지 및 보완하고 새로운 소통방식을 추가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금왕 휴게소 쓰레기 사건으로 학생회관에 포스트잇을 붙여 학우들의 의견을 보여준 방법을 모티브로 **포스트잇 게시판**을 만들어 카테고리 별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붙여 노후화된 건의함을 수거하고, **새로운 건의함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 게시판과 건의함에 제시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게시하겠습니다.

### 예시1)



금왕 휴게소 쓰레기 사건 포스트잇 시위

### 예시2)



노후화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건의함

# 「정책」

신뢰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

## 선거체제개편

현재 인문사회대, 경상대, 공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는 세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거시행세칙 제1장 제4조 적용범위 2항에서 '선거시행세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는 이 세칙을 준용할 수 있다.'를 인용하면 단과대학은 이를 토대로 선거를 진행할 수 있지만 학부 및 학과가 세칙에 맞게 선거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거시행세칙을 학부 및 학과에 적용하기에는 세칙의 범위와 양은 방대하고, 현재 선거세칙에는 학부와 학과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총학생회 선거와 단과대학 선거에 치우쳐져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 및 학과 학생회 또한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체계적인 선거세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거시행세칙이 없고 일부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거가 아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거체제 개편에 관한 안건을 발의하고,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단과대학별로 선거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원을 통해 각 단과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별로 선거시행세칙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학별로 선거시행세칙을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정 및 개정하여 현재 자체적으로 행해지는 학부 및 학과의 선거에 있어 모든 학생회가 체계적이고 공정한 선거시행세칙에 의한 선거로 당선됨으로써 **학우 여러분들의 신뢰로 이루어진 학생회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결산안 자료를 좀 더 세부적이고, 더 접근하기 쉽게!

## 감사위원회 개편

올해 감사위원회가 확립되어 매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존재와 활동은 청렴한 학생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학우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에는 미흡한 현실입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 없음’으로만 되어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사유서를 기재하는 방식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감사위원회 결과의 열람 조회 수는 우리 학생 수에 비해 현저히 작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 학우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회에 문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어 감사 결과를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학생들이 보기에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재 감사위원회의 현실입니다. 이를 근거로 **감사위원회를 개편**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달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사무 재정국이 단순히 ‘이상 없음’이 아닌 결산 내역을 기재하여 단과대학별로 파일을 압축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 QR코드 및 링크 기재로 보다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매달 오프라인 소통 부스를 시행하면서 학우분들이 열람하고자 하는 해당 학생회의 감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의문점은 담당자에게 빠른 답변 및 조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시) 6-8월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수원대학교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									
위원장	인사	경상	공과	ICT	전과	미술	음악	응문	교문
○	○	○	○	○	○	○	○	○	x
감사 일시	2019년 9월 9일 ~ 9월 30일					작성자	이진규		
감사 안전	수원대학교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부, 학과 6~8월 결산 감사								
	내용							비고	
	1. 총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2. 중앙운영지원금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3. 인문사회대학 학생회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4. 인문학부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5. 법행정학부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6. 외국어학부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7.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8. 참여행정학과(야)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9. 경상대학 학생회 학생회비 6~8월 결산 감사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 이상 없음

\*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 되어있지 않으며, 이상 없음으로만 표기

# 「복지」

기숙사비 부담, 등록금 부담 나눠서 내자!

## 기숙사비 분납제도 도입

현재 기숙사 입사 시스템은 합격 통지 후에, 한학기 기숙사비를 일정기간 안에 한 번에 납부해야 입사가 가능합니다. 기숙사 납부 기간은 등록금 납부 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학우분들의 부담은 배가 되는 상황입니다. 기숙사생은 약 420만원의 등록금(2019년도 미술대학 기준)과 약 120만원의 기숙사비(2019년도 경상대학 기숙사 기준)를 한 번에 내야하는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기숙사 분납제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2018년도 2학기 때 분납제도를 실시하여 보증금을 제외한 기숙사비를 2회차로 나눠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분납신청기간을 주고 합격조회에서 분납신청을 받았고, 2차 납부기간때 미납시 중도 퇴사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금전적으로 문제없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이 한 번에 거액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분납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경우의 중도 퇴사자가 생겨 공실이 생긴 경우 2차 납부기한 때에 일주일의 신청기간을 두어 신규 기숙사 인원을 받아 기숙사 신청을 순환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기숙사비 책정 및 일괄납부의 근거를 검토 후에 타 기숙사의 비해 금액이 높은 ‘신 경상대학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분납제도 임시 도입 하겠습니다. 그 후에,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는 학우들의 의견 수렴 후, 타 기숙사 확대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숙사비 책정 및  
일괄납부 근거 검토



신 경상대 기숙사부터  
시범 도입



의견 수렴 후에  
타 기숙사 확대운영



✓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 낙후된 시설 개선

현재 교내 시설물은 매우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차장과 음악대학에서 아마랜스홀로 가는 길은 밤에 매우 어두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학에서 미래혁신관으로 가는 길과 법정대학에서 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길은 상태가 좋지 않아 학우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대운동장의 농구장과 스탠드는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 운동하는 학우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낙후된 시설들이 학우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낙후된 시설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우들이 불안을 느끼는 크고 작은 안전 문제들을 취합하여 발 빠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 정책기획국에서 낙후된 시설물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생활지원국에게 피드백을 넘기는 체계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후, 기획처 및 관리과에 공문을 통한 지속적인 요청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대에서 아마랜스홀 가는 길]



[대운동장 농구장 시설]



[대운동장 스탠드 및 계단]



[체대에서 미래혁신관 가는 길]

## 셔틀버스 개편

셔틀버스는 학우 여러분들이 보다 편하게 교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셔틀버스의 대한 불만사항과 요구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노선은 송내 방향 셔틀버스를 제외한 상록수, 금정, 성남, 수원, 강남 방향의 수가 적은 상황임에 뿐더러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선은 증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보다 편안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셔틀버스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셔틀버스 노선은 인천과 서울 노선으로 각 1대 씩, 나머지는 경기도 노선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역버스는 사당 노선과 잠실 노선 각 2대와 강남 노선은 1대가 있지만, 광역버스는 경유지가 많아 돌아가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경로를 통해 돌아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반대로, 셔틀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경유지가 존재하지 않아 광역버스보다 빠른 시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셔틀버스 개편에 관해 셔틀버스의 지원 예산 증강과 셔틀버스 체계를 수정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체계 회의에 대하여 학생대표위원을 포함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노선의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회의를 통하여 셔틀버스 관련 부서에게 의견을 전달하여 통학하는 학우 여러분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수원대 방향 기준]

- 송내 방향  
07:00~09:10(수시운행)  
10시00분, 11시00분
- 상록수 방향[3대]  
08시20분, 09시40분,  
10시30분
- 금정 방향[2대]  
08시10분, 09시40분
- 성남(야탑) 방향[2대]  
08시00분, 09시30분
- 수원역 방향[4대]  
08시35분, 08시55분,  
09시35분, 09시55분
- 강남 방향[1대]  
08시00분



## 셔틀버스 개편

### 셔틀버스 전자화를 도입하겠습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 매번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에서 현금보다 카드를 사용하는 변화의 흐름에 맞춰 현금결제만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셔틀버스를 통해 더 편리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도입된 중앙도서관 어플에는 모바일 이용증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학우들은 QR코드를 통해 학생증 없이도 중앙도서관 출입이 가능해져 더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셔틀버스 전자화 도입을 추진하고, 더불어 전자화가 시행되면 학우분들의 저렴한 셔틀버스 이용을 위해 정액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들의 근거를 토대로 학생지원처와 셔틀버스 담당자와 협의하여 건의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편의를 증진시키며 학우들이 더 편리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교육권」

수업권리 되찾기 PROJECT 첫번째!

## 강의매매 차단

현재 교내 수강신청 시스템은 선착순제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착순제는 강의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수강신청 기간에 자신이 듣지 않는 수강을 넣어두고 SNS에서 강의를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을 악용해 돈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비도덕적 행위입니다. 저희 여울 선거운동본부는 매년 발생하는 강의매매 사건에 대해 부정 행위임이 정확히 인지하고, 다수 학우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매매를 해결하고자 ‘취소-신청 지연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강의매매는 판매자가 신청 강의를 취소하는 즉시 구입자가 그 빈자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취소-신청 지연제’를 도입하여 잔여석 발생시 일정기간 이후에 수강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강의매매를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취소-신청 지연제는 많은 타대학에서 강의매매를 막고자 하는 방법으로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울 선거운동본부는 타 대학 적용 사례를 검토하고, 교무처와 협력하여 공정하지 못한 수강신청 시스템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내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취소-신청 지연제

잔여석 발생

일정기간 이후

수강신청 가능

수업권리 되찾기 PROJECT 두번째!

## 강의평가 공개

성적열람기간에 성적을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당학기에 들었던 강의에 대해 강의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평가의 결과는 해당 담당교수님들만 알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교과정보와 교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미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의 수업권리와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강의평가를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학우들이 강의평가 자료를 통해 강의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더불어 수업의 질과 강의 만족도를 향상과 동시에 학우분들의 수업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강의평가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의 수강신청 시 강좌 선택의 자료 및 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의평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의평가 규정 제7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관리) 2항 강의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제8조(강의평가결과의 조회 등) 4항은 학생의 수강신청 시 강좌선택의 자료 및 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개할 수 있다.”

우리는 수업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더 좋은 수업 환경에서 공부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강의평가 공개를 통해 교수님들과 소통하여 아쉬운 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평가 공개를 실시하기 전에 강의평가 문항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하여 강의평가 문항을 개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교무과와 교육성관리센터에 강의평가 공개를 요구하여 Excellent(상위1% ~ 20%), Good(상위20% ~ 80%), Common(상위80% ~ 100%) 등의 방식으로 **강의 평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수강신청 전에 자신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학우들의 수업권의 대해 건의사항 의견을 조사 및 수렴하여 여러 방안으로 **여러분의 수업 권리를 되찾아가겠습니다.**



# 「문화」

여울과 함께 만드는 축제!

## 축제 '서포터즈'

학우 여러분들과 다 같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수원대학교의 축제를 더 풍성하고 알차게 만들기 위해 **축제 서포터즈를 모집**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단과대학 부스, 학부 및 학과 부스, 동아리 부스만으로 구성되어 학생회가 아닌 학생이나 동아리에 속해 있지 않은 학생이 공식적으로 부스를 운영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축제 진행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학우들의 숨겨왔던 끼를 방출할 수 있고, 축제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단지 수동적으로 공연만 보는 축제가 아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수료증 및 봉사시간을 부여해 스펙이 될 수 있는 서포터즈를 기획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학우 여러분의 숨겨왔던 끼를 방출할 수 있는 부스 공모전을 시행하겠습니다. 축제 부스 기획안을 통해 신청받고, 대동제준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러 신청 부스들 중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부스를 채택함으로써 학우 여러분들에게 부스 운영을 통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펙에 도움이 되는 수료증을 부여하겠습니다. 더불어 학우들이 축제 진행에 참여할 수 있는 진행요원을 모집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중앙무대 관리, 축제 내부 질서 정비, 학우들의 안전 보호 등 축제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게 됩니다. 전반적인 진행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고, 보람차고 의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진행요원은 단순히 열정페이만 아닌 수료증 부여는 물론, 학교 측과 사회봉사센터와의 협의를 통한 봉사시간을 부여하겠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더 풍성하고 알찬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대생이 우선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

## 축제 'WOW'존 [재학생 존]

2019년도 대동제 때, 중앙무대 앞 자리는 수원대생이 아닌 외부인들로 장악되었습니다. 대동제는 수원대생을 위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으로 인한 피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학교 축제 기간마다 나오는 외부인 통제 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계획 및 운영되는 축제이기에 재학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OW'존을 설치하여 수원대학교 학우들이 우선으로 즐기고 먼저가 되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 'WOW'존이란?

'WOW'이란 메인 중앙 무대 바로 앞의 스탠딩 공간으로 수원대학교 학우들의 편리하고 질 높은 공연 관람을 위해 운영됩니다



예시)



신분증과 함께 학생증이나 포털로 재학생임을 인증하면 팔찌 제공 및 도장을 찍는 방식을 통해 재학생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수원대학교 학우들이 우선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제휴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자!

## 문화제휴 확대

학업에 지친 학우분들의 힐링이 되어드리고자 저희 여울 선거운동본부는 더 다양한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문화제휴를 확대하겠습니다. 출판사, 기획사, 공연단, 등과 제휴를 맺어 공연, 영화, 콘서트, 이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제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더 높은 만족도를 위해 문화협력국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분들이 원하는 문화제휴를 체결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문화 분야 및 콘텐츠로 제휴를 체결하여 학우분들의 질 높은 문화생활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대와 함께  
흘러가다, **여울**